

페퍼스, 오지영 벤치에 두고...GS에 1승 '헌납'



광주 AI 페퍼스 오지영이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V리그 GS칼텍스전에 출전하지 못하고 벤치에 앉아 응원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해 12월 오지영을 트레이드 하면서 '전소속팀 상대 출전 불가 조항'을 페퍼스에 제시했고 페퍼스는 이에 응했다. (KOVO제공)

“전 소속팀 상대 출전 불가” 선수 권리 침해” 문체부 권고 무시 ‘오지영 결장’ 0-3 완패 3연패...선수 차별·승부 조작 논란 계속

광주 AI 페퍼스가 출전 금지 조항에 묶인 리베로 오지영을 벤치에 앉혀놓고 GS칼텍스에 패배를 당했다. 오지영을 트레이드한 페퍼스와 GS칼텍스는 문체부의 권고와 팬들의 비난에도 이같은 조항을 이행키로 해 선수 차별, 승부 조작 논란이 지속할 전망이다. 페퍼스는 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2-2023 V리그 원정 경기에서 GS칼텍스에 세트스코어 0-3(14-25, 22-25, 16-25)으로 완패했다. 시즌 2승 24패(승점 7)를 기록한 페퍼스는 3연패의 늪에 빠졌다. GS칼텍스는 페퍼스를 잡고 3연패에서 벗어났다. 리시브 라인의 핵심인 리베로 오지영의 공백이 컸다. 리시브 효율 33.33%에 그친 페퍼스가 53.19%를 찍은 GS칼텍스를 극복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이날 경기는 GS칼텍스 주포 모마가 결장한 지난 달 23일 페퍼스가 1-3 극적인 승리를 거뒀던 때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주포 니아 리드(15점·공격 성공률 47.4%), 이한비(8점·38.9%)가 23점을 뽑아냈으나 GS칼텍스 모마는 홀로 23점(58.8%)을 기록했다. 페퍼스는 이날 오지영을 출장시키지 않았다. ‘전소속팀 상대 출전 불가 조항’이 선수 권리와 리그 공정성을 해친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권고 조치에도 GS칼텍스와 계약을 이행한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문화부는 최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OVO는 “오지영 선수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하여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지영은 3월 9일 GS칼텍스전에도 출장하지 못하게 됐다. 트레이드 이후 GS칼텍스전 전체 3게임을 결장하게 된다. 오지영은 GS칼텍스에서 뛰던 지난해 12월 페퍼저축은행으로 트레이드됐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합의 내용이 지난달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2024-2025시즌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은 GS칼텍스는 트레이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올 시즌 양 팀 잔여 경기에 오지영을 투입하지 말 것을 제안했고 이를 페퍼저축은행이 받아들였다. 해당 트레이드를 승인한 한국배구연맹(KOVO)은 ‘전소속팀 경기 출전 금지 조항’이 선수 기본 권리와 리그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하루 3번 대국 ‘혹사’ 신진서 37연승 제동

원성진 9단에 249수만에 불계패

한국 바둑랭킹 부동의 1위 신진서(23·사진) 9단이 공식 대국을 하루에 세 판이나 두는 초유의 일정 끝에 국내 단일기전 최다 연승 기록을 중단했다. 키스(Kixx) 소속의 신진서는 3일 밤 성동구 마장로 바둑TV스튜디오에서 열린 2022-2023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난가리고 3라운드 포스코케미칼과의 에이스 결정전에서 원성진 9단에 249수만에 불계패했다. 2021년 3월 27일 챔피언결정전 2차전에서 신민준을 꺾은 이후 바둑리그에서 36연승을 달린 신진서는 이로써 무패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신진서는 패인은 집중력과 체력의 저하였다. 프로바둑 사상 유례없이 본선 대국을 하루에 세 판이나 두는 강행군을 펼쳤기 때문이다. 신진서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KBS 신관스튜디오에서 열린 제41기 KBS바둑왕전 4강에서 변상일 9단을 불계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로 자리를 옮겨 바둑리그 키스의 선봉장으로 출전해 포스코케미칼의 박민규 8단을 역시 불계로 꺾었다. 그러나 키스와 포스코케미칼의 팀 대결이 2-2가 되면서 신진서는 밤 11시 포스코케미칼의 주장 원성진과 에이스 결정전을 벌여야 했다.

국내 프로바둑에서 예선이 아닌 본선 대국을 하루에 세 판 두는 경우는 신진서가 처음이다. 에이스 결정전은 각자 제한 시간 1분이 지나면 20초 안에 뒤야 하는 초속기 대국이지만 신진서의 체력과 집중력은 이미 바둑이었다. 신진서는 초반 유리하게 출발했지만, 중반으로 접어들며 우하 쪽 접전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한순간에 형세가 불리해지고 말았다. 이후 반격을 노렸지만 노련한 원성진의 수비방을 제대로 뚫지 못하자 자정이 지난 0시 13분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말았다. 올 시즌 바둑리그에서 7연승 뒤 첫 패를 당한 신진서는 2021년 3월부터 이어진 36연승 행진도 마감했다. 2000년생인 신진서가 아무리 헬기 왕성하더라도 하루에 세 판의 프로 대국은 심각한 혹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기원 관계자는 “중국 바둑리그 일정이 늦게 확정되면서 우리 일정과 겹쳤다”라며 “KBS 바둑왕전 일정도 조정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선수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기원이 무리한 일정 수립으로 프로기사들을 혹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불, 실내육상 여자 500m 세계신기록

팜키 불(23·네덜란드)이 실내육상 여자 500m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불은 5일(한국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린 인도어 그랑프리 여자 500m 경기에서 1분05초63으로 우승했다. 2위는 1분08초34에 달린 레이 앤더슨(24·자메이카)이었다. 세계육상연맹은 “불이 사상 최초로 실내육상 500m에서 1분06초 벽을 넘어선 여자 선수가 됐다”고 전했다. 여자 500m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정식 종목이 아니다. 이 종목 경기가 자주 열리지도 않는다.

하지만 세계육상연맹은 실내 500m 기록을 집계하고 있다. 불은 올레스야 크라스노메츠-포르세바(러시아)의 종전 세계기록 1분06초31을 0.68초 앞당겼다. 불은 경기 뒤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00m 세계기록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 기록을 세울 줄은 몰랐다. 레이스 중에는 페이스가 처진다고 느꼈다”며 “400m 허들, 400m를 뛰는 내게 500m 경기는 좋은 훈련이다. 이번 시즌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출발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6강! 대역전극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3 데이비스컵 최종본선 진출전(4단 1복식) 4단식 한국 홍성찬과 벨기에 지주 베리스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2-0(6-3 7-6(7-4))으로 승리한 한국 홍성찬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男테니스 데이비스컵 사상 첫 2연속 16강

벨기에 3-2 뒤집어

한국 남자테니스 국가대표 선수단이 국가 대항전인 데이비스컵에서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16강에 진출했다. 박승규(KDB산업은행)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테니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3 데이비스컵 최종본선 진출전(4단 1복식) 벨기에와 경기에서 종합 점수 3-2로 승리했다. 지난해 최종본선 진출전에서는 오스트리아를 3-1로 꺾고 세계 16강에 해당하는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진출했던 한국은 2년 연속 세계 16강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날 1, 2단식에 나섰던 권순우(61위·당진시청)와 홍성찬(237위·세종시청)이 모두 패한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만든 대역전극이어서 기쁨이 더했다.

우리나라는 1981년과 1987년, 2007년, 2022년에 이어 통산 다섯 번째 데이비스컵 파이널스에 나가기 됐다. 2년 연속 16강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0-2 비랑 끝에서 5일 경기를 시작한 한국의 승산은 크지 않아 보였다. 복식송민규(복식 147위·KDB산업은행)-남지성(복식 152위·세종시청) 조가 요란 불리겐(복식 53위)-잔디 질(복식 55위) 조에 비해 랭킹이 낮고, 3단식 권순우-다비드 고펡(41위), 4단식 홍성찬-지주 베리스(115위) 등 세 경기 모두 랭킹에서 벨기에가 우위였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세 경기 가운데 1승을 따내기 어렵지 않았지만 한국은 뜻밖에 3연승을 거두며 ‘리버스 스왑’으로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진출에 성공했다. 먼저 복식 송민규-남지성 조가 불리겐-질 조에 2-0(7-6(7-3) 7-6(7-5)) 승리를 거두며 대역전극의 발판을 닦았다.

승부의 분수령은 권순우와 고펡의 두 팀 ‘에이스’ 맞대결이었다. 권순우는 먼저 1세트를 내줬지만 2-1(3-6 6-1 6-3) 역전승을 거뒀다. 1세트 게임스코어 2-0 리드를 지키지 못했던 권순우가 2세트는 5-0으로 달아나며 분위기를 바꿔냈고, 고펡은 2세트 이후 왼쪽 손목에 출혈이 생기는 등 경기력이 뚝 떨어졌다. 고펡은 2017년 세계 랭킹 7위까지 올랐던 세계 정상급 선수지만, 권순우의 2세트 이후 대반격에 3세트 경기 도중 공을 전광판 쪽으로 쳐 보내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역전 드라마를 완성한 것은 마지막 주자 홍성찬이었다. 수비형에 가까운 홍성찬은 서브 최고 시속 213km를 찍은 공격형 베리스를 맞아 착실하게 랭킹을 이어가며 상대 실책을 끌어내 2-0(6-3 7-6(7-4)) 승리를 거뒀다. 올해 데이비스컵 파이널스 조별리그는 9월에 열린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교섭, 유령
- 2관 상건나, 몬스터 하우스2: 인비저블 피닉스
- 3관 아바타: 물의 길
- 4관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5관 유령
- 6관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메간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메간
- 7관 씨네마플 바빌론, 교섭
- 8관 씨네마플 영웅, 메간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2-01(수) ~ 2023-02-26(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공연
국립광주박물관과 함께하는 판소리감상회
 일시 : 2023-02-26(일), 2023-03-26(일) 15:00
 장소 : 국립광주박물관 대강당
 문의 : 062-526-0363